

【전당포】

장르 및 러닝타임

스릴러/드라마, 15분

로그라인

어느날 전당포에 한 남자가 찾아와 비트코인이 든 지갑 주소를 담보로 담배값을 빌려달라고 한다.

기획의도 및 주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절실함이 횡령, 살인과 같은 범죄의 행위로 변모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 어쩌면 돈은 우리가 만들어낸 질병이 아닐까. 영화를 통해 인간의 허영심을 보여주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돈의 질병적인 단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캐릭터

박주영(30세/여) : 아버지의 전당포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인물이다.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에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하영(27세/여) : 주영의 동생으로 사치에 관심이 많으며 돈에 대한 욕심 또한 많다.

임찬수(45세/남) : 횡령한 돈을 투자로 전부 잃은 인물로 재물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손님 1

시놉시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전당포. 어느날 행색이 초라한 찬수가 찾아온다. 그는 전당포 주인인 주영에게 담배값을 요구한다.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며 거절을 하지만 초라한 행색의 그를 보고 주영은 만 원을 쥐어준다. 찬수는 담보를 주겠다며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건넨다. 종이에선 코인이 들어있는 디지털 지갑의 주소와 비밀번호가 적혀있다.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영은 별 감흥 없이 받아 주머니에 넣는다.

집으로 돌아온 주영은 동생 하영의 도움을 받아 코인이 든 디지털 지갑을 확인한다. 지갑에는 비트코인 1개가 들어있다. 지갑을 두고 하영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좋아한다. 하지만 주영은 손님의 담보일 뿐이라며 하영의 기쁨을 억누르게 되고 둘은 다투게 된다. 다음날 영업중인 전당포로 하영이 찾아온다. 하영은 주영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하영에게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시나리오

S#1 전당포 앞 복도/오후

한 여자가 전당포 문 앞에 서있다. 전당포 문에는 OPEN 팻말이 걸려있다.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쓰다듬기를 반복한다. 애처로운 표정의 여자.

손님 : 애기야... 언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알았지?

가방에 입을 맞추다. 전당포 문을 여는 여자.

S#2 전당포/오후

전당포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온다. 주영은 앉아 손님을 맞이한다.

박주영 : 어서오세요.

손님 : 안녕하세요. 가방 맡기려고 하는데요. 얼마까지 돼요?

박주영 :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손님 : 100만원이요.

주영은 손님의 가방을 건네 받는다. 이리저리 살펴본다.

박주영 : 70만원. 1.7%에.

손님 : (흥분한 목소리로)이게 얼마짜린데 그것밖에 안돼요?

손님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힌다.

손님 : 혹시 80까지도 안 될까요?

박주영 : 네. 안돼요.

손님 : 네... 주세요.

주영은 손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넨다.

박주영 : 여기다가 성함이랑 싸인 해주세요.

손님 : 여기요.

계수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주영은 손님에게 돈을 건넨다. 가방을 뒤에 있는 바구니로 옮겨 담는다.

손님 : 조심...! 조심히 다뤄주세요. 나중에 와서 꼼꼼히 확인할 거예요!

손님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박주영 : 안녕히가세요.

타이틀이 나온다.

[전당포]

S#3 전당포/저녁

전당포 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오는 찬수. 찬수는 흠뻑이라도 굴렀다가 온 것처럼 형클어진 머리와 먼지 덮인 정장을 입고 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보인다.

박주영 : 어서오세요.

임찬수 : 저기요. 여기 돈 빌려주는 데 맞죠?

박주영 : 네.

임찬수 : 제가요. 담..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요. 담배값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4,500원만. 아니 라이터까지 해서 5,500원만요.

박주영 : 담보는요?

임찬수 : 제가요.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아무... 아무것도 드릴게 없는데요.

박주영 : 여기 전당포고요.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임찬수 : 아... 저 혹시 그러면 코.. 코인도 받아요? 비트코인.

박주영 : 그게 뭔데요? 저희는 전자기기나 명품만 받아요.

주영은 찬수가 딱해보이는 듯 잠깐 쳐다보다가 지갑을 꺼낸다. 1만 원 짜리를 꺼내어 그에게 준다.

박주영 : 여기요. 이거 그냥 드릴 테니까 담배 많이 피우시고요. 안녕히가세요.

임찬수 : 아...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지갑 주소라도... 그... 메모지 한 장... 있을까요?

박주영 :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임찬수 : 아네요. 담보... 있어야죠.

주영은 귀찮은 듯 메모지와 펜을 찬수에게 건넨다. 찬수는 종이에다가 지갑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는다.

임찬수 : 여기. 비트코인 한 개 들어있거든요. 이거 그냥 현금으로 바꿔서 쓰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어서...

박주영 : 예. 감사합니다.

임찬수 : 예... 그럼 수고하세요.

주영은 한숨을 푹 쉰다. 시계를 보니 8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다. 정리를 하고 불을 끄고 나가는 주영. 문을 걸어 잠근다. 팻말을 CLOSE로 돌려 바꾼다.

S#4 집/저녁

주영과 하영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다.

박하영 : 확인 해봤어? 진짜일 지도 모르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하고 떨어질지.

박주영 : 이거를 뭐 어떻게 확인하는데?

박하영 : 종이 줘봐.

하영은 노트북 앞으로 가 앉는다. 주영은 하영의 뒤로 가 서서 지켜본다.

박하영 : 이게 지갑이라는 거야. (집중하며) 여기다가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쓰고...

주영은 남자가 준 메모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입력을 한다. 지갑에 접속이 되고 지갑에는 비트코인 한 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한다.

박주영 : 있네. 1개.

박하영 : 뭐야 이게? (믿기지 않는듯 눈을 비빈다.) 진짜네? 어떡해 언니!

박주영 : 왜 이게 뭔데 그래?

하영은 핸드폰을 켜 비트코인의 시세를 확인한다.

박하영 : 언니.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 줄 알아? 1억.

박주영 : 1억?

박하영 : 그래. 우리한테 지금 1억이 생겼다니까? 언니. 언니 이제 전당포 그만하고 우리 카페 하나 차리자. 응? 아니다. 이사부터 갈까?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이제 벗어나자고.

박주영 : 김치국은. 이거 그냥 그 사람이 담보로 맡기고 간 거라니까. 우리 돈도 아니면서 쓸 생각부터 하고 있어.

박하영 : 담보는 무슨 담보? (언성이 높아진다.) 그 사람이 쓰라고 했다면!

박주영 : 그래. 이게 1억이라면...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인줄 알고 써? 멀쩡한 돈이면 그 사람이 썼겠지.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줘? 정신차려.

박하영 : 언니야 말로 정신차려.

박주영 : 이게 훔친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

박하영 : 일단은 쓰고 나중에 경찰이라도 오면 어?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는 그냥 0어떤 남자가 쓰라고 줬다. 돌려주려고도 했는데 다시 안 찾아왔다. 말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참... 짹 막혀가지고. 이걸 기회라고 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박주영 : 너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벌써 잊었어?

박하영 : 그게 뭔 상관이야?

박주영 : 전당포 하면서 담보로 맡긴 물건 어?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술먹고 노름하다가 죽은거잖아. 벌써 잊었어?

박하영 : 오늘따라 꼰대처럼 왜 그래. 시발.

하영은 방문을 쿵 닫으며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박주영 : 뭐 시발? 너 미쳐가지고 아주 뽀는 게 없구나. 야! 밖으로 나와. 야! 박하영!

문을 두드리다 멈춘다. 머리를 쓸어 넘기는 주영.

박주영 : 싸가지 없는 년.

숨을 고른다. 주방으로 가 신경질적으로 식탁을 정리한다.

S#5 지하철/아침

출근길 지하철역 계단을 바쁘게 오르내리는 사람들.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는 주영. 지하철이 도착하고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 탑승한다. 출입문 쪽에 기대어 서 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다. 뉴스에서는 횡령 사건 소식이 들린다.

뉴스 : 코스피 상장사 J그룹에서 30대 직원 임모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챙겨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 따르면 임씨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영은 이어폰을 빼고 지하철 내부 전광판을 본다. 역을 확인하고 문 앞에 서 내릴 준비를 한다.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오른다.

S#6 전당포 앞 복도/오후

하영이 어깨에 명품 가방을 메고 한 손엔 커피 다른 한 손으로 캐리어를 끌며 복도를 걷는다.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간다.

S#7 전당포/오후

전당포 문이 열린다.

박하영 : 언니! 커피 마셔.

박주영 : 하영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캐리어는 뭐고? 어디 가?

박하영 : 나 여행 간다고 했잖아.

박주영 : 아 그게 오늘이었어?

박하영 : 언니랑 싸우고 얼굴도 못보고 갈 수는 없지. (애교 섞인 말투로) 어제는 내가 미안. 언니 말이 맞아. 우리 돈도 아닌데.

기분이 풀리는 듯 보이는 주영.

박주영 : 됐어. 잘 갔다 와. 조심하고.

박하영 : 그래서 말인데... 언니~ 나 선글라스 하나만 빌려도 돼?

박주영 :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려고 왔지?

박하영 : 아 언니 딱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내가 선글라스 산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박주영 :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절대 안돼.

하영은 물건들이 보관돼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선글라스를 하나 끼고 나온다.

박하영 : 언니 나 갓다올게.

박주영 : 그래. 조심하고 시간 날때마다 연락해.

박하영 : 응.

문 앞에 멈춰선 하영. 주머니를 만지작거린다.

박하영 : 참, 안에다 휴대폰 놓고 왔네.

하영은 뒤로 돌아선다. 돌아서자 선글라스에 비치는 주영의 모습. 주영은 손에 뽕족한 무언가를 쥐고 있다.

박하영 : 언니?

박주영 : 응?

하영의 표정이 서서히 굳는다.

S#8 전당포 앞 복도/오후

주영은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려 하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문 앞의 팻말을 OPEN에서 CLOSE로 바꾼다. 다시 경쾌한 발걸음으로 걷는다.

S#9 한강/해질녘

캐리어를 끌며 인적이 드문 한강길을 걷는다. 낭떠러지 앞에 한참을 서 있다. 긴장한 듯 보이는 주영의 모습. 캐리어를 밀어 강에 빠뜨린다. 털썩 주저 앉는다. 이내 웃기 시작하는 주영. 그 자리에 드러 눕는다. 선글라스를 벗는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하늘 위로 펼쳐본다. 지갑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쥐고 더 크게 웃는다.

박주영 : 아, 좋다. 내 돈.

끝.